

사설

40세 넘더라도 희망을

대한불교 조계종 중회에서 40세 이상은 출가를 금지한다는 결의가 세상에 알려지자 뜻밖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에서는 네티즌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9월 17일 오전 현재 40세 이상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출가를 허용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이 62%에 달하고 있다. 붓다뉴스에서도 자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조사에 참여한 76명 중에서 68명이 40세 이상이라도 출가 기회를 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조계종단에서 출가자의 연령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회에서 이미 결의된 사항에 대해 알기알부하고 싶지 않다. 전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 재세 당시에도 구이나

갈국에 있던 120세의 수발타라는 외도가 출가하고 있다. 마구잡이식 출가의 허용은 승단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 인도불교 역사상 전례없는 파달리푸트라 결집은 무분별한 출가 허용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령이 초과되었더라도 엄격한 심사에 의해 기초적인 수학 능력이 있거나 재가시 수행이력이 축적된 사람, 그리고 종단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은 다원종교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종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출가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별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종단의 발전과 화합, 그리고 불교 본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지자체 직접발주 재고해야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의 투명한 회계 처리 등의 이유를 들어 2003년부터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사업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하도록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불교문화재는 그 결에서 항상 아끼고 보존 관리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찰의 소임자를 만큼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없다. 더욱이 천년을 이어온 불교의 숨결이 한국의 불교 문화재를 만들어 왔고 오늘에도 그 독특한 숨결로 해서 문화재의 가치가 살아나며 계속 보존되게 마련이다. 당국은 마땅히 그 소임자들의 전문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후원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불교문화재 보수를 지자체행정부와 전문보수업체에게 맡기겠다는 발상이 과연 옳은 것

인가, 묻고 싶다. 그동안 사찰직영방식의 문화재 보수사업은 그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게 평가돼 왔다. 이를 얼마간의 부작용을 이유로 전성성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자체의 감독과 일반기능인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문제를 오히려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며 불교계에 또 하나의 규제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지금까지 문화재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불교문화재가 왜곡 훼손되며 사라진 예가 적지 않다. 문화정책 당국은 불교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하루속히 '문화재 보수 국고보조사업 추진 방침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

불교계에서도 문화재 보수에 대한 자체 감독 장치를 강화해 다시는 이 같은 어리석은 정책 입안의 근거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등서 현실무시 문화재 일방적 보수

성보 보존·관리 큰 문제 따를것”

본말사스님들 “무책임 시공” 정면거부

조계종문화부 워크숍 통해 의견조율

그림 같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전북의 전통사찰 M사. 이 절에 가면 경내 한가운데 사격에 맞지 않는 화장실 하나가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다. 몇 년 전 해당 지자체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간이화장실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한 것. 과연 해당사찰 스님이 화장실 공사를 주도했다면 마땅한 가운데 전통 사격과 어울리지 않는 화장실을 만들었을까.

문화재청이 2003년부터 문화재 보수국고보조사업 추진주체를 지자체등 관리관청에 의한 발주로 전환하겠다고 문화재 소유사찰에

통보해,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성보문화재 보수사업의 경우 50%(70여건) 가량만 사찰에서 집행하고 있는 상태다.

조계종 호남지역 본말사 주지 스님들은 12일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문화재보수 국가보조사업 추진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정부당국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강행할 시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천명했다.

스님들은 또 “불교문화재에 대한 생생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을 운운하며 비전문가들로 대부분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만으로 문화재를 지키고 보수하겠다는 발상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문화재청과 문제가 된 일부사찰 현장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이후 워크숍 개최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잡고 있다.

문화재청의 지자체발주 추진 결정은 문화재 보수금과 관련 국고에 의존한 문화재 주변정비에 대한 비판여론, 사찰에 대한 불신, 범어사 등 일부 사찰의 문화재 보수 정비자금 유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스님들을 배제하겠다는 것. 하지만 문화재청의 이 인은 문

화재생산주체이며 보존관리를 도맡아온 스님들의 그동안 공로를 인정치 않는 것이어서 교계의 수용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문화재 보수는 50%정도가 사찰의 발주 방식과 직영으로 행해졌다. 사찰직영방식은 사업의 효율성이 높고 만족도가 높은 것이 사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발주공사를 한다면 사찰의 의지와 관계없는 보수사업 실시, 시행업체 관리통제 불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자칫 지자체와 불교계의 혼란과 반목이 예상된다.

조계종 성보관리위원회 이기선 문화재위원은 “문화재청의 방침이 추진되면 앞으로 불교계에서 성보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따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종단차원의 국가보수금 우선순위 지정, 사찰공사 감독관 파견, 깨끗한 회계처리를 위한 교계의 시스템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a.com

청담스님 탄신100돌...내달 각종행사

도선사(주지 혜재)는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고 청담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재평가 하기 위해 10월부터 두 차례의 학술세미나를 비롯한 추모법회 및 산시음악회, 논총 및 문집 간행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청담스님(1902~1971)은 두 차례씩 조계종 총무원장과 총회회장을 역임하고, 66년에는 통합종단 제2대 종정을 지냈으며, 47년 봉암사 결사와 54년 불교정화운동을 주도하는 등 근현대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논총·문집 발간, 세미나·음악회 개최

10월10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1차 학술세미나는 ‘청담대중사이 불교사상과 불교교단 정화운동’을 주제로 성보스님(동국대 석학과 교수) 목장배 교수(전 동국대 교수) 등 6명이 주제발제에 나선다. 10월12일 오전 10시 수원 범사에서 열리는 2차 학술세미나에서는 ‘청담대중사의 선사상 및 수행과 교화행’을 주제로 법신스님(동국대) 이진오 교수

(부산대) 등이 주제발제를 한다. 이에 앞서 도선사는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15편의 논문을 수록한 ‘청담 대중사와 현대 한국불교의 전개’ 제목의 논총을 5일 발간한다. 또 모두 11권으로 구성되는 청담스님 문집 가운데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신심명강의 및 선입문> <자문록> 등 6권도 10월초에 완간한다. 10월15일 오전 11시에는 도선사에서 청담대중사 탄신 추모

기념법회를 봉행하며, 이날 추모법회에서는 논총 및 문집 봉정식 및 청담스님 유품을 전시해놓은 상설전시관 개관식도 함께 거행된다.

이와 함께 도선사는 10월20일 오후 6시부터 도선사 경내에서 불자음악인과 연예인을 초청해 국악과 가요,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축제형식의 산시음악회를 개최한다. 02993-3161 한명우 기자

대정부정책개발위 구성

조계종, 대통령 후보 공약 등 분석

조계종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가 지향해야 할 불교정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정책개발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정부정책개발연구위는 △구고지원 요청서 작성 △불교관련 법개정 △정부의 주요정책과 대한 △대정부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산하에 대정부 정책개발 실무팀을 두고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 분석, 정보수집, 정책개발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개발위 위원장 조계종 기획실장(스님)은 “각당 후보자의 공약분석, 향후 대정부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범불교적 종합대책 필요합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터넷·일간지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디피아' www.buddho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인쇄인 : 김규석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대표전화 02-737-8881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23기 행자교육 16일 회합

사미(니) 189명 배출

지난 8월25일부터 시작된 조계종 제23기 행자교육원이 16일 회합 189명의 사미(니)를 배출했다. 15일 5급 승가교시를 치른 뒤 16일 거행된 행자교육원 회합식 및 수계식에서는 남행자 104명 여행자 85명이 사미(니)계를 수계했다. 이번 행자교육원에는 남행자 111명 여행자 88명이 입교해, 이 가운데 남행자 7명, 여행자 3명이 탈락했으며, 22기 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여행자 2명이 23기 행자교육원 이수생들과 함께 사미(니)계를 받았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님품)을 증명합니다. 또한 지면제과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님품)을 증명합니다. 또한 지면제과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

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언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종교단체 납골당 운영사업을 사업자와 함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할 수 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1. 장묘 문화의 새바람으로 납골당 건립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에 대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8백억원을 들여 경기도에 40만평을 조성하고 있고, LG는 서울에 15만평을 조성 계획중입니다.
2. 종교단체 반야암 납골당은 육.공로의 교통이 편리한 김해 “가야랜드 유원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미 200만평의 전국적인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원지 내에는 골프장 어린이 놀이터 호수 산림욕장 운동장등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3. 납골당 규모는 부지 4,440㎡ 지상에 현재 건축된 건물건평은 99.60㎡에 불과하나 앞으로 허용된 건폐율에 의하면 건평1,322㎡를 건축할 수 있고 여기에 유골 1만 위를 봉안할 수 있어 1위당 300만원씩 계산하면 약 300억원의 소득이 된다할 것입니다.
4. 반야암 부지 4,440㎡는 도시시가가만 30억원이나 되는 전국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입니다.
5. 그리고 납골당 건물이 사찰 경내지 동편에 별 동으로 건립 되어 있기 때문에 타종교 단체 신도의 납골시설 이용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카톨릭 광주교구가 1만 4천위 규모의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위 종교단체 반야암 납골당 운영사업을 사업자와 함께 그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스님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삼방동 825-2번지 전화 055)337-0677 / 011)575-6998 반야암 운영회